번뇌를 여의면 얻을 법이 없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뚜렷이 밝고 두루 비춘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기 때문이다. 온갖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 얻을 법이 없다. 부처라 하는 것은 본래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심을 깨닫고 보면 그것이 곧 부처인 것이다."

이상은 황벽희운(黃蘗希運:?~850) 선사의 〈전심법요(傳心法要)〉에 나오는 말이다. 〈전심법요〉는 황벽 선사가 배휴의 청으로 심법(心法)의 종지(宗旨)를 전해 준 법문이다. 이 법문이 설해지고 기록되어 전하게 된 데에는 황벽 선사와 배휴의 특이한 인연이 있었다.

〈전등록〉 권 12에 수록된 〈배휴장〉에 의하면 한때 황벽선사가 황벽산 대안정사에 이름을 숨기고 지낼 때였다. 어느 날 배휴가 이 절을 찾아와 도량을 둘러보다가 불전(佛殿)을 참배하고 벽화(壁畵)을 감상했다. 배휴는 그 절의 주사(主事)에게 물었다.

"저 그림은 누구의 초상화 입니까?" "고승의 초상화입니다." "영정(影幀)은 여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사가 대답을 못하자 배휴가 다시 물었다.

"이 절에 참선하시는 스님은 없습니까?"

"근자에 와 계시는 한 스님이 참선을 오래 하신 분 같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리하여 배휴가 황벽 선사를 만나게 되었다. 배휴는 아까처럼 "고승의 영정은 벽화로 남아 있는데 고승은 어디에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황벽 선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배휴"하고 불렀다. 배휴가 "예" 하고 대답하자 황벽 선사가 다시 "그대는 지금 어디 있는가?"하고 물었다.

이 순간에 배휴가 심법(心法)의 종지(宗旨)를 깨달았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에 의하여 배휴는 나중에 황벽 선사의 재가 제자가 된다.

배휴가 종릉(鍾陵)의 관찰사로 재임하던 때(842) 황벽 선사를 수부(首府)로 모셔다가 용흥사(龍興寺)에 머물게 하고 조석으로 도를 물었다. 그러다가 완릉(宛陵)의 관찰사로 전임이 되어 선사를 다시 개원사로 모신다. 거기서도 예를 갖춰 도를 묻고 황벽 선사로부터 들은 법문을 적어 둔다. 그 것이 바로 〈전심법요〉다. 다시 말해 〈전심법요〉는 배휴가 황벽 선사로부터 들은 법문을 메모해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857년 편찬해 공개한 것이다.

종릉에서 기록한 것과 완릉에서 기록한 두 가지를 합하여 황벽어록인 〈전심법요〉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의 것 〈종릉록〉만을 전심법요라고 하기도 한다.

황벽 선사를 단제(斷際)선사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도 일화가 숨어 있다. 황벽 선사가 행각을 하다가 염관제안 선사를 방문하여 먼저 법당에 들러 참배하고 있었다. 이때 한 사미가 와서 물었다.

"구도자는 불 · 법 · 승 그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스님은 무엇 때문에 예불을 하십니까?"

"내가 불 · 법 · 승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관례적인 의식에 따를 뿐이다."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황벽 선사가 사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러자 사미가 말했다.

"어째서 이렇게 무례하고 거치십니까?" 황벽 선사가 꾸짖었다.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을 아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칠다 곱다 함부로 떠드는가?"

그리고는 두 번을 더 때렸다.

이때 맞은 사미가 폐불사태를 유발한 당 무종 다음에 왕위에 오른 선종(宣宗)이었다. 무종의 위해를 피해 절에 와 사미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선종이 어느 날 궁궐에서 황벽 선사에게 뺨맞은 것을 기억하고 왕자에게 손을 댄 행실이 거친 추행 사문이란 호를 주려고 하자 이를 알고 재상으로 있던 배휴가 간하였다.

"선사가 폐하를 세 번 때린 것은 폐하의 삼세의 윤회를 끊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종이 호를 바꾸어 단제라는 호를 내렸다. 묘하게도 나중에 그의 법을 이어 받은 임제(臨濟) 선사에게도 세 차례 방망이로 때린 인연이 있었다.

분별 · 차별없는 한마음이 참모습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⑱ 무득무설분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 得阿 耨羅三三菩提耶. 如來 有所說法耶 須菩提

(수보리 어의운하. 여래 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야 여래 유소설법야 수보리)

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名阿 耨羅三 三菩提 亦無有定法如來可說. 何

(언. 여야해불소설의 무유정법명아뇩다라삼먁삼보리 역무유정법여래가설. 하)

以故 如來所說法 皆不可取 不可說 非法 非非法 所以者何 一切賢聖 皆以無爲

(이고 여래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이무위)

法 而有差別 (법 이유차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겠느냐. 또 여래가 어떤 법을 설명한 일이 있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정한 법이 있는 것이 없어서 이름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므로 다만 정한 법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래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왜냐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오면 모든 성현께서 함이 없는 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 '아'는 없다(無)는 뜻이고, '뇩다라'는 위(上)라는 뜻으로 위가 없으니 아래도 없습니다. 위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아래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는 스스로 없지 못하고 아래가 없을 때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상, 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좌(左), 우(右)도 역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 하가 없으니 좌, 우도 없으므로 일체의 분별 대립이 없다는 뜻이며, '삼'은 바르다(正)라는 뜻으로 분별망념을 여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다는 뜻이며, '먁'은 두루하다, 평등하다(等)는 뜻으로, 상하와 좌우가 없고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일체가 두루하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이 마음을 '보리' 또는 깨달음(覺)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므로 오직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망념을 여의면 모두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분별망념에서 벗어나라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말씀하셨으나, 이 말씀을 들은 중생들은 망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있다고 또 다시 집착합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은 중생들이 분별망념의 집착에 대응한 임시방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함이 있거나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며, 모든 이름은 마음의 다른 이름 즉 마음의 별명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참마음의 별칭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 없고,' 여래의 말씀은 티끌수와 같은 우리들의 망념에 대응한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으로는 참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아닌 것이 진공이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묘유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본래 이름은 마음이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마음의 별칭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오면 모든 성현께서 함이 없는 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와 같이 무위법(無爲法)으로 차별이 있는 성현들도 역시 방편입니다. 성현은 보살 10지에 속하며 무색계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가 주고받는 말씀의 진정한 뜻은, 티끌만한 분별과 차별, 계급이 없는 한마음이 우리들의 참된 모습일 뿐 성현도 차별이 있으므로 또한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람이 신을 만든다

사람은 귀신을 만든다 생각으로 만들고 행동으로 죽인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무수한 신(神)을 만들고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神)의 존재를 지우거나 잊으며 멀리했다.

배화교로 알려진 조로아스터교는 불(火)를 숭배하며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은 물론 유럽전역과 아시아에 까지 그 추종세력을 넓혀왔으나 이젠 역사의 유적지로만 남아 전설이 된지 오래이다.

마니교는 기원 후 3세기에서 7세기동안 그 절정기를 이루며 선(善)과 악(惡), 영성(靈性)과 물질성의 대립을 벗어나 빛의 세계를 주창해 왔으나 역사의 그림자만 남긴 채 아득히 사라졌다.

지역과 인종에 따라 문화와 풍속에 젖어 토테미즘(Totemism)과 샤머니즘(Shamanism)의 신앙이 그 무게와 색깔을 달리하며 우후죽순처럼 자라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또 다른 윤회를 거듭해왔다.

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길(路)을 만들고 신(神)을 만들며 생활문화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명칭과 신분이 다를 뿐 사람이 모여 사는 세계 곳곳의 마을에는 수호신이 있고 접신의 매개체인 주술신앙의 무당이 자리해 그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불멸의 인간이 존재할 수 없듯 영원불멸의 신(神)도 없는 것이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욕구에 의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신(神)은 시대상황의 변천과 문화융성의 발달에 의해 사라지고 잊혀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신(神)도 신(神)의 이름도 신(神)의 모습도 사람에 의해 태어났고 사람에 의해 이름도, 모습도 지어지고 그려졌던 것이다.

예전 어린 시절에는 삼신할머니 귀신이 있어 길(吉) · 흉(凶) · 화(禍) · 복(福)과 아이의 잉태와 수명을 점지해주는 것으로 믿고 의지해왔다. 그러나 요즘엔 그런 풍습과 무속신앙은 색을 바래며 잊혀지고 있다.

예전의 화장실 문화는 수세식이 아닌 옹기항아리를 땅에 묻어 볼일을 아슬아슬하게 처리해 왔던 것이다.

전기불도 없는 측간(厠間)에서 어두운 밤의 볼일은 두려운 일 일수밖에 없을 터이다. 하여, 변소간을 지키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측신(厠神)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장실이 아파트 문화로 생활의 주거 공간인 안방 한 켠에 자리 잡게 되었다. 거기다가 비데까지 설치되 화장실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미니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변소를 지킨다는 측신은 비데의 물소리에 놀라 사라진지 오래이다.

예전 초가집의 부엌에서 밥 짓고 국 끓이는 땔감은 나무였다. 젖어있을 수 있고 땔감의 질량에 따라 불길의 타는 속도가 달랐다. 하여, 밥이 죽이 되거나 떡이 설익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부엌을 지켜주는 신(神)이 있다고 믿게 된다. 이 부엌신이 조왕신이다. 조왕신의 조화에 따라 밥이나 떡이 설익을 수도 익을 수도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민속신(民俗神)인 셈이다. 그러나 이 조왕신의 믿음과 존재는 방안에 설치된 싱크대 문화에 밀려 사라진지 오래이다.

몽골이나 티베트에서 우리네 성황당 같은 돌무더기 쌓아둔 곳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

수많은 무속신은 이젠 퇴색했는데 불교엔 아직도 삼재 · 사주가 남았다

자신의 미래에 밝은 빛의 충만을 발원하기 위한 장소이다. 누구나 이 돌무더기를 지나며 돌 한 개를 던져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빌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황당의 돌무더기 쌓아올림도 민속신앙보다 재미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신할머니의 역할이었던 아기 잘 출산하는 일은 산부인과 의사 몫이고 변소 지키는 측신의 두려움은 방안 화장실의 비데문화가 두려움은커녕 편안함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조왕신의 할 일은 전기밥솥이 편리하도록 대신하며 조왕신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비롭게도 깨달음의 종교인 사찰 주변에서 아직도 머물고 자리하고 있는 신(神)의 무리가 많다는 일이다.

사찰의 종교의식에 낄 수없는 운명론 쪽으로 흐르는 삼재풀이, 전생의 빚, 관상, 사주풀이, 부적 등의 떳떳치 못한 행위 등이 더디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신본주의(神本主義)가 아닌 마음 중심의 종교이다.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부처되는 종교이다. 더 이상 신(神) 쪽으로 기울지 말길.

불기 2561 (2017)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경건한 신심으로 두손 모아 거룩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붓다선 명상지도자 1급 자격증 수강 안내

우리는 정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정승가를 위해
석가모니를 완성한 성불의 비밀 "붓다선"을 전법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수행자의 동행을 환영 합니다

수강일정 : 5월 30일 개강(매주 화요일 오후 2 ~ 5시. 5개월간)

수강과목 : 앗딴누수행(쌍깝빠. 와짜. 깜만따. 아지와. 아누맛자명상)
: 싸마타수행(아나빠나싸띠. 와야마명상)
: 위빳싸나수행(까야. 웨다나. 쌋따. 담마명상)
: 아리야쌋짜수행(둑카. 싸무다야. 니로다. 막가명상)
: 위뭇띠수행(9차제정명상) ※수강료는 무료. 선착순 16명 모집

강의장소 : 견불선원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40-1)

전 화 : 070-7717-2276

세계승가회

승왕 뿐냐싼또

총 재 수밋다 회 장 수완나 대장로 현지
비서장 싯달라 기획실장 설원 나란다대 총장 견원
교학처장 도원 연수국장 대원 교육국장 인원
문화국장 청원 포교국장 성원 인권국장 다원
홍보국장 법일 심리상담국장 연우

홈페이지 - http://www.worldsangha.org

붓다선 힐링명상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8시 (견불선원)